

첨단 미디어, '귀신 간첩 할머니'의 원혼을 달랜다

'미디어시티 서울 2014'전, 서울새남굿 굿판으로 개막

아시아 역사 속의 매혹과 금기
전통·냉전·여성을 주제로 한
17개국 작가 미디어아트 전시

첨단 미디어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 한
복판에서 굿판이 벌어졌다. '미디어시티
서울 2014'가 시작된 1일 오후 서울시립
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서울새남굿예능보유자 이상순만신이 개
막공연을 했다.

"여기가 원래 재판소 자리라서 억울하
게 죽은 원혼이 많아. 오늘 다 극락 가는
거야. 세월호에 죽은 사람들 원혼도 달래
야 해. 서울미술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여
기 온 분들 모두 재수 좋게 해주시고..."

박찬경 예술감독은 만신에게 손을 조아
리며 미디어시티서울의 성공을 빌었다.
외국에서 온 아티스트들은 만신이 건네주
는 제주를 음복했다. 구경은 사람들은 쫓
깃한 먹음 받아 오후의 허기를 달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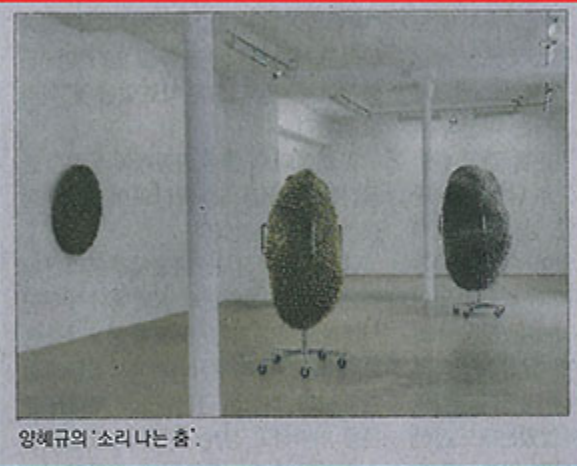
개막공연으로 굿이 선택된 것은 이번
미디어시티서울의 주제가 '귀신 간첩 할
머니'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화두를
'아시아'로 잡은 박찬경 감독은 귀신, 간
첩, 할머니가 현대 아시아를 돌아보는 세

가지 키워드라고 밝혔다. 귀신은 아시아
의 누락된 역사와 전통, 간첩은 냉전의 기
역, 할머니는 가부장제 사회를 견딘 여성
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는 보이지
않거나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전형적 타자'인 동시에 매혹과 금기의 대
상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에는 17개국 42팀의 작가들
이 230여점을 출품했다. 최원준의 <만수
대 마스터 클래스>는 1959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교시에 의해 설립된 미술 스튜디오
에 대한 다큐멘터리, 자료 등으로 구성

됐다. 만수대 스튜디오는 사회주의 리얼
리즘 양식의 대형 동상, 기념비를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공건축물을 지
으며 '외화벌이'를 한다. 작가는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에서 에티오피아, 세네
갈, 토고의 기념비나 건축물에 '주체에
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이 작
품은 2014 베니스건축비엔날레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한국관에 영상 일부가 공
개된 바 있다.

<해녀>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미
카일 카리키스가 2012년 3개월간 제주 해
녀공동체와 함께 지내며 만들어낸 작품이
다. 검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들어가
면 돌고래 울음소리 같은 제주 해녀의 숨



양혜규의 '소리 나는 춤'.



미카일 카리키스의 '해녀'.

비소리(해녀의 전통적 숨쉬기 기술)가
들리고, 전면의 영상에서는 노동요를 부
르는 해녀들이 보인다. 이날 열린 기자간
담회에 참석한 카리키스는 "세계화, 자본
주의에 황폐해져가는 문화는 내 작업의
일반적 주제"라고 설명했다.

다무라유이치로는 1928년 조선총독부
가세운 고등재판소가 현재의 서울시립미
술관으로 바뀌었다는 장소성에 주목했
다. 그는 1764년 조선통신사 수행원 최천
종이 일본 오사카에서 통역을 맡은 하급
무사 스즈키 텐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영상으로 옮긴 뒤 이를 당시 법정을 연상
케 하는 세트에서 보여준다. 이 사건은 당
시에도 화제를 불러일으켜 가부키 공연

등의 소재로 사용됐으나 미묘한 국제 문
제 때문에 상연이 중지됐다고 한다.

양혜규의 <소리 나는 춤> 등 신작들은
방울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 스스로 혹은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작품들은 방울들끼
리 부딪치는 소리로 공간을 채워 작품이
주문을 외우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만 출
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오싱 아서
리우의 <코라>는 티베트 수도 라싸에서
출발해 에베레스트 산에 이르는 2300km
의 여정을 고화질의 영상으로 보여준다.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미디어시티서울
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미술관 직영사
업으로 전환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
관 관장은 "미술관이 행사를 직영함으로

써정보를 축적하고 예술감독을 전폭적으
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려 한다"고 말
했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는 11월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한국영상자
료원 두 군데서 만날 수 있다. 영상 작품들
은 2차원의 시각 정보를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기발하게 고안된
전시 공간과 어울려 3차원의 감흥을 안겨
준다. 작품들은 저마다 독특한 관점, 정
보, 감상을 전하면서도 전시의 주제와 자
연스럽게 맞닿는다. 관람에 시간을 요하
는 영상 작품이 많은 데다 입장료가 무료
라 여러번 찾으면 더 좋겠다.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1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미디어시티 서울 2014' 개막행사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이상순 만신이 서울새남굿을 하고 있다.